

한옥 짓는 책 한옥 시공실습 안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2012

김희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단순히 한옥을 구경하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 한옥을 직접 지어 보는 영역으로까지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옥 짓기 실습수업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수업을 기획하고자 하는 관련 주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교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한옥 짓기 실습의 과정과 작업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한옥 짓기 실습수업에서 교재로 활용하고자 〈한옥 짓는 책〉을 기획했다.

〈한옥 짓는 책〉은 한옥 짓기 실습수업의 기획단계에서 필요한 내용,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 한옥 짓기 실습의 공정별 자세한 과정, 실습을 위해 필요한 강의 내용,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제1장 한옥 짓기 기획’은 한옥 짓기 실습수업을 개설하려는 관계자가 기획단계에서 참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한옥을 지을 집터와 좌향 선정, 접근성과 전기·수도 등의 자재 적재 가능성 등을 고려한 수업장소 확보, 한옥의 설계도 작성에 대한 기본적 내용 숙지, 수업에 소요되는 예산 수립, 건축신



이 책이 한옥 짓기 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실습교재로,
수업 개설을 위한 현실적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고 등 인·허가 관련 사항, 섭외해야 할 전문가, 실습시간 및 실습 공정, 주차별 강의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 한옥 짓기 준비’는 한옥 짓기 실습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항목들로 구성돼 있다. 준비 항목은 자재의 적재 및 교육생의 실습을 위한 공간과 설비의 마련, 실습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와 장비·공구 준비, 실습 과정에서 병행되는 각종 행사 물품과 식순, 실습 교육생들의 인원과 구성 및 역할계획 수립 등이다.

‘제3장 한옥 짓기 실습’은 한옥 시공실습을 공정 순서대로 회차별 구분해 해당 공정의 개요와 해당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하는 사항, 자세한 실습내용을 알기 쉽게 구성했다. 준비단계부터 기초공사, 목재 치목과 조립, 상량식, 지붕공사, 마루 치목과 조립, 벽체공사, 창호공사, 기단공사, 현장정리, 현판식·입주식·종강식에 이르기까지 한옥 짓기 실습의 작업과정 전체를 상세히 설명했다. 작업과정을 단순히 기록하기보다는 해당 작업의 의의, 작업내용 및 순서, 유의사항 등을 시공실습의 측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특히 상세한 관련 사진과 도면을 수록함으로써 작업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책의 우측 상단에 해당 작업의 소요시간, 주작업자, 준비사항, 소

요자재, 실습형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삽입함으로써 실습수업의 실제적 운영을 돕고자 했다.

‘제4장 한옥 짓기 강의’는 실습수업 전반에 대한 주의사항, 각종 수공구·전동공구의 종류와 사용법, 효율적인 실습에 필요한 공정별 주요 숙지사항 등 한옥 시공 제반사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상세한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생들의 실습참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과제물의 예시도 포함됐다.

‘제5장 부록’에는 실습계획서와 진행보고서 예시, 관련 건축법규, 실습 한옥의 이름 짓기와 상세도면 예시, 실습 진행일정표 예시를 수록했다.

〈한옥 짓는 책〉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강사진에게는 체계적인 실습교재가 되고, 수업을 기획하고자 하는 관련 주체들에는 수업 개설을 위한 현실적인 안내서가 되고자 했다. 대학교 건축학과를 비롯한 관련 학과의 수업, 한옥학교를 비롯한 한옥과 관련된 교육기관의 한옥 짓기 실습수업, 사회단체와 지자체에서 시민참여로 진행되는 특별강좌, 동호회의 취미강좌 등 다양한 한옥 짓기 실습수업에서 〈한옥 짓는 책〉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아파트

박철수, 마티, 2013

아파트 한국사회

박인석, 현암사, 2013

설정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건축물은 「건축법」을 바탕으로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건축가가 역량을 발휘해 짓는다. 이 당연한 구조에서 비껴 있는 건축물이 우리 도시경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아파트 단지다.

불특정 다수에게 소비되기 위해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된 아파트는 1960년대 이후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이 공급됐다. 매우 낮은 주택 유형이었던 만큼 도입 당시 부정적이던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되어 현재 우리나라 주택 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를 보는 시선은 늘 곱지 않았다. 형태적으로 획일성이라는 단어로 비난받았고, 사회적으로는 커뮤니티의 파괴와 소외감이라는 단어로 비난받았다. 이로 인해 판상형을 탑상형으로 만들고 경관조명을 달아 형태적·미적 변화를 추구한 다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가 생기며 빚어진 문제에 대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법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왜 아파트를 여전히 대량으로 공급하는가'다.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어서 지금은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절대적인 주택 부족이 해결된 오늘날에도 아파트가 우리 도시공간의 대부분을 잠식해 가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었거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급

되고 소비되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최근 두 권의 아파트 관련 책이 출간됐다. 하나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의 박철수 교수가 지은 〈아파트〉이고, 다른 하나는 명지대학교 건축학부의 박인석 교수가 지은 〈아파트 한국사회〉다.

이들은 그동안 아파트에 대한 형태적이고 미학적인 비난에서 탈피해 아파트가 공급되고 소비되는 데 작동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읽어내고 있다.

두 저자는 주택연구소와 공동주택연구회에서 공동 연구와 집필 활동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사유하며 발전시켜 왔다. 그동안의 저작은 전공자들을 위한 것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이번에 출간된 저작은 아파트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풀어 쓴 것이다. 그 안에는 그동안 두 교수가 품고 있던 아파트에 관한 생각이 오롯이 들어 있다.

〈아파트〉는 제목 그대로 아파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10개의 꼭지로 나누어 이야기한다. 먼저 우리가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에 대해 '소설에 비친 아파트의 삶'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어서 아파트 도입의 역사(2.일제강점기 '아파트'의 등장, 3.해방 이후 최초의 아파트 등)와 지금의 아파트 공화국으로 정착된 사회적 조건들(4.생활혁명에서 아파트지구까지, 5.중산층 주택으로서의 아파트 그리고 시장분화, 6.단지의

공간정치학), 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과 이로 인해 드러나는 사회적 불공정성(7.모델하우스의 마법, 8.발코니와 공정사회, 9.똑같은 평면 그리고 면적 산정의 숫자놀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파트가 만들어 낸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로 일갈한다.

박철수는 <아파트>에서 한국의 아파트를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 부를 수 있는 ‘국가주의와 가족주의’가 사회공간으로 실천된 물질적 에너지이고, ‘단지화 전략’으로 무장된 공간정치의 시스템이자, ‘끊임없는 사익의 확대’로 인해 공익이 무력화되는’ 엄연한 일상적 공간이다”라고 요약했다.

여기서 방점이 찍혀야 하는 것은 ‘일상적 공간’이다. 일상적 공간의 변화는 좋은 도시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파트 한국사회>다.

<아파트 한국사회>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아파트’에서 ‘아파트단지’로 전환해 집중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박인석 교수는 한국사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보다는 아파트를 만들어 내는 전략에 집중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은 크게 6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아파트 불패의 신화’는 아파트를 만들어 내는 그 이면의 전략에 기인함을 강조한다. 아파트 자체가 한국 경제성장의 일등공신으로, 정부는 아파트 단지화 전략을 통해 힘들이지 않고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도시의 기반시설까지 확보하고자 했다고 비판한다.

2부에서는 이렇게 확장된 ‘단지 공화국’이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땅이 좁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아파트에 대한 비난이 본질을 벗어나고 있음을 밝힌다.

3부에서는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상품성을 극대화한 한국의 아파트 평면이 갖고 있는 왜곡된 문제들(넓고 밝은 집, 전용공간, 발코니, 수납공간의 부족 등)을 꼼꼼하게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아파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4부에서는 한국의 아파트가 상품이 아닌 집으로서 기능을, 그리고 그렇게 기능해야 함을 강조하며, 5부와 6부에서는 도시를 바꾸면 우리의 일상이 바뀔 수 있고, 아파트를 바꾸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저자의 생각을 전한다.



사회적 문제로서의 아파트와 더불어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까지 아우르고 있다.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50여 년 만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공간이 됐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경제부흥의 기폭제, 개인적 욕망의 대상... 너무 많이 언급돼 이제는 상투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요인들이 아파트가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파트는 지금도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는 주택이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한국사회는 아파트의 공급과 관련된 제도적·정치적·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말하기 어렵고,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의 공간구성에 담긴 제도적·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말하기도 어렵다.

그동안 아파트를 통한 ‘사회 읽기’는 사회학자들이 독식하고 있었고, 그들은 주로 사회적 문제로 아파트를 다루기 때문에 아파트 공간에 대한 이해는 크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평하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아파트와 그로 인한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까지 아우르는, 두 건축학자가 쓴 <아파트>와 <아파트 한국사회>는 아파트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읽고 논할 ‘거리’가 돼 줄 것이다.

* 이 저서의 부제이기도 한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말은 강준만 교수의 <한국인 코드>라는 책에서 따온 말로 강 교수가 사용하도록 허락해 쓴 표현이다.